

인류 문명과 환경문제

매우 거창한 제목을 내걸고 얘기해보라는 환경보전협회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큰 주제인지는 십분 자각하고는 있습니다. 이는 이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수창 회장님에 대하여 제가 오랜동안 존경의 마음을 지녀온 것이 저로 하여금 협회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게 한 첫 번째 이유였고 실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고자 15년전에 혼자서 반년동안 머리를 싸매고 “독학”으로 공부했던 쥐꼬리만한 밀천을 이번 기회에 팔아보고자 한 알팍한 생각이 협회의 제의를 수락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매우 어렵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고 작은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께선 지난 1년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距離)를 여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승용차로, 고속버스로, 기차로, 비행기로...

많은 분들은 지난 1년 동안에 해외여행도 하셨을 것이고 국내에 관광여행도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분당에서 서대문밖으로, 또는 일산에서 강남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옛날 같으면 그 “통근 거리”가 몇개의 군(郡)을 횡단하는 몇 십리의 “여행거리”가 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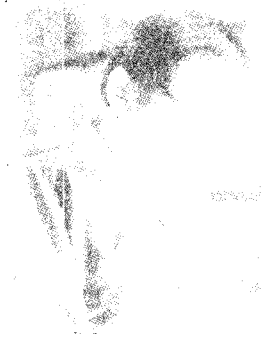
그렇게 따져 본다면 오늘날 한국사람의 대다수가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는 우리들 할아버지 시대엔 그나마도 오직 생활에 여유있는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일평생 여행하는 거리에 맞먹거나 그 거리를 훨씬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문명”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와 같은 “문명의 이기”없이 우리들의 두 다리라고 하는 “신체의 자연”에만 의존한다면 여러분들께선 오늘의 이 모임에도 때 맞춰 참석하기가 어려웠을 줄 압니다.

인간의 신체의 힘,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보다 높게 해주기 위해서 인류의 문명은 그 힘의 원천, 에너지 원(源)을 인간 밖의 자연속에서 찾아냈습니다. 말이나 소의 힘이건, 수력이나 화력의 힘이건 인간은 인간 밖의 자연에서 그 에너지를 찾아내 이용해 왔습니다. 인간의 자연 이용, 인간의 자연 지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인간의 자연 착취, 인간의 자연 적대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문명의 역사는 그 점에선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개발해 온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개발한 그러한 에너지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가장 “문명적”인, 가장 고도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밤을 낮처럼 밝게 해주고, 사람을 남산보다 높은 빌딩에서 힘들이지 않고 편히 오르내리게 해주고 겨울을 봄처럼 따뜻하게, 여름을 가을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의 두뇌보다 훨씬 많은, 훨씬 빠른, 훨씬 정확한 정보처리를 해주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전기를 얻기 위해서 수력 발전소가 생겼고 그것으로 전력수요를 충당못하게 되니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이른바 화석(fossil)연료를 이용해서 화력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化石)



최정호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부 수료, 베를린 자유대학교졸업 (現)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미래학회 회장

연료의 사용이 아마도 서서히 “인류문명과 환경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의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화석연료는 그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장차 제기 될 환경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의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표의 장기적인 기온변화는 인류문명의 미래에 화석연료에 의한 먹구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석연료는 그러나 그의 사용이 초래할 인류의 생존환경에 대한 위협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서 그의 공급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연구보고서(WAES-Report)에 의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충 다음 세기의 제1/4반기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이내에 제2차적 내지 제3차적 에너지공급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철저한 유전의 발굴과 채굴을 통해서 산유량이 현재의 배로 증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970년대부터는 산유국의 석유 무기화 정책에 의한 급격한 유가(油價)인상으로 화석에너지는 종전과는 달리 매우 값비싼 에너지가 되어 그것이 비산유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 원자력발전에 의한 핵에너지입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핵에너지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하며 환경에 피해를 주지않는 가장 깨끗한 “클린 에너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핵에너지는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이상으로 지구에서의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에너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두 극단에서 대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원자로 건설을 둘러싼 찬반의 대립이 가장 격렬하게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전문적인 수준에서 격론을 벌였던 곳이 1970년대 후반의 서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의 주제에 관해서 15년전에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한것은 바로 70년대 말 서독에서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쟁을 추적해보고 이해해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우리들 모두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론권에서는 정부나 기업이나 심지어 학계에서도 첫째 관심을 가진 사람조차 별로 없고 둘째 어느

곳에도 이 문제를 물어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심정에 빠져버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핵 발전을 둘러싼 유럽의 논의를 알아보기 위해 미전문의 문외한으로서 사전과 씨름하며 난해한 “전문용어의 밀림(密林)”속을 파헤쳐 들어가보면서 얻은 결론은 핵에너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도 확실한 결론은 아무것도 없고 합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미 “핵의 문명”의 길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핵의 문제는 그 본성에 있어 단순한 에너지 정책상의 문제, 또는 테크놀러지의 문제를 벗어나서 인류의 산업문명 전체의 운명(運命)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문자 그대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외면해 버릴 수 없는 문제, 그에 대한 해결이나 결정을 유예할 수도 없고 유보할 수도 없는 화급한 문제,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뚝 부리지게 시원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니 어느 곳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폭넓은 합의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를 받아들이자는데에 대해서도 강렬한 그리고 이유가 타당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그를 거부하지는 데에 대해서도 강렬한 그리고 이유가 타당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가 곧 핵의 문제, 핵에너지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요컨대 현재의 인류문명과 환경 「문제의 핵」에 는 바로 「핵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는 핵에너지를 위한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단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발전을 포기할 경우 그것은 그와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있어 치명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에너지 부족에

의한 산업의 위축은 고용정책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동정세의 불안정과 산유국의 석유무기화로 인한 유가폭등은 핵에너지를 단념할 수 없는 명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엔 원자로 발전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어떤 최후의 테크놀로지도 아직은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드리마일 섬 핵 발전소에서 일어났던 핵 사고와 1986년 4월 26일 옛 소련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대참사는 그때까지 원자로 발전에 대한 불안을 杞憂라고 했던 핵에너지 안전론자들의 낙관론과 설득력에 심대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1974년 미국에서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로 발전소에서 심각한 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50억분의 1에 불과하다고 보도된 5년후에 드리마일 섬에선 핵 사고가 일어났고, 1975년 당시 가동중인 원자로에서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백만년만에 한번 있을 것이라는 미국 원자력 당국의 보고서가 발표된 11년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대참사가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발생확률이 극소치로 계산되고 있는 “대참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사고없이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의 증가에 의한 방사능오염의 증대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원자로가 1기 건설될 때, 설혹 방사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원자로 폐기물의 처리장이 하나씩 늘게 될 때, 그리고 안전관리가 철저한 모든 방사성 물질이 수송될 때, 그때마다 전반적인 방사성 위험률은 증가하고, 그때 마다 필연적으로 암환자의 발생률도 증대하리라는 것이 원자로 건설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핵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마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맺은 “파우스트의 계

약"을 인류가 맺은 꼴이 되었다고 미국의 원자물리학자 일반 와인버그는 말한 바 있습니다.

원자로 건설에 대한 반대론 가운데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논란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이것은 이미 우리 한국의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방사성이 강한 핵폐기물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처방도 아직 없다는 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성이 반감되기 위해서만도 2만4천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핵 에너지의 원료 "플루토늄 239"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결국 인류는 이 지구에 거대한 "핵의 묘지"를 건설해야 되며, 마치 초기 그리스도 교도들의 "카타콤베"처럼 지하에 건설될 이 "핵의 묘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만년 동안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는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문명이 개발한 어떤 기술도 "제3의 불"이라 일컫는 이 핵에너지처럼 그렇게도 큰 희망과 그렇게도 큰 불안, 그렇게도 큰 수익(受益)기대와 그렇게도 큰 위험부담을 동시에 안겨준 전례는 없었습니다. 한쪽에선 원자로 건설이 깨끗하고 사실상 무제한하고 덧붙여 값이 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핵에너지의 개발로 해서 "인류의 멸망"의 날은 다가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원자로 1기면 인구 1백만명의 도시에 대한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다 무엇이 "뻑"하는 날이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1천배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지표를 덮게 될,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반의 시비가 이처럼 열띤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에 아랑곳 없이 "보호망 없는 공중의 줄타기 곡예"라 비유되는 원자로의 건설

과 가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론자 폴 엘리히는 핵에너지 개발을 "비(非)군사분야에서 미국이 일찍이 기도한 최대의 모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선 그 핵발전이 갖는 그러한 모험도 위험도 모른채 원자로가 건설·가동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개발이 단순·무모한 모험만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그것은 원자로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말의 유럽에서 전개된 핵 에너지에 관한 찬반 논쟁에선 찬성론쪽에서는 특히 서독의 세계적인 원자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칼·프리드리히·폰·바이츠재커 박사의 여러 논문을 감명깊게 섭렵했고 반대론 쪽에서는 에너지 문제와 "자원전략"의 전문가인 미국의 소장 물리학자 애모리·로빈스 박사의 논문들을 흥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빌론 왕국의 언어 혼란"의 현대판이라고 누군가 비유한 바 있는 핵 에너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난해하고 까다로운 학술적인 논의를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바이츠재커의 찬성론과 로빈스의 반대론을 다같이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비교한 뒤에도 어느 쪽 주장의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부터는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로 건설은 위요한 찬반논쟁을 공부한 것은 헛수고였던 말이나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원자로 건설의 찬반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다같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많은 교훈과 충고와 당장 착수해야 할, 착수할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들만을 몇가지 골라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실업에 대한 눈앞의 불안이”이 “방사능에 대한 먼 훗날의 불안”을 물리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핵에너지의 개발이 “거의 불가피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옹호할 만한 것”이라고,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원자로 건설에 찬성했던 바이츠쾅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찬성론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주관적인 시야의 제약”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개진하는 어떤 주장도 그를 객관적으로 옹호하기에 충분한 특수 전문지식을 자기 혼자서 다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과학에 어두운 비전문가들을 어리둥절케 하는 이 전문가의 고백은 핵에너지라고 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개관(概觀)하기. 힘든 문제인가를 새삼 실감케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핵 문제에 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바이츠쾅커와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의 “사물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선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그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인간에 대한 판단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 에너지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누구나 지나치게 성급하고 겸손한 낙관론은 절대로 자제해야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절약”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측정에 관한 문제를 거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츠쾅커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인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 수요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좀 묶은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70년대말 세계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치는 거의 2Kw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70%는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 이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고 그 반면 세계 인구의 부유한 7%는 1인당 평균 7Kw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UN에 가입한 회원국 중에서 80개 이상의 나라들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세계평균치의 10분의 1인 0.2%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완만해 질 것이나 후진국·개발도상국에서는 강력한 성장정책이 추진될 것이고 또 추진되어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 전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락센부르크 연구보고서”는 향후 50년 이내에 에너지 소비의 세계 평균치는 1인당 4.4K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1인당 에너지 소비의 세계 평균치를 현재 이상으로 너무 급작스레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의도적으로 “금욕적인 세계문화”로의 이행(移行)이 불가피하다고 바이츠 쾅커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상론하겠습니다.

요컨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고 있는 바이츠 쾅커조차도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위해선 경제 성장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또 에너지 소비의 적절한 성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의 절약에 제1차적인 우선권을”(1)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분별”입니다. 그를 위해선 다시 절약의 문제, 전기에너지의 절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독의 에너지 수요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로빈스는 모든 에너지 수요를 “제1차적 에너지 형태”(연료와 전력)에 의해서 충족시키려 하는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수요의 아주 적은 일부분만이 이처럼 고가(高價)의 에너지 형태로만 충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독의 지멘스 회사, 발전협회 등의 여러 리포트에 의하면 서독의 에너지 공급량의 76%가 “열”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중 50%는 1백도 이하의 열을, 12%는 1백도에서 6백도의 열을 그리고 오직 14%만이 6백도 이상의 열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백도 까지의 열은 구름이 낀 겨울 날에도 태양열 집열기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서독의 차량교통을 위해 사용되는 액화 연료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매우 고귀하고 고가(高價)의 에너지 형태”로만 경제적으로 의의있게 충당할 수 있는 특수 에너지 수요는 전체 수요의 오직 7%에 불과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 수요의 두배를 충족시킬만한 전력을 서독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독의 에너지 수요의 압도적으로 큰 몫은 화력 발전이나 핵발전이 공급하는 것 보다 훨씬 싸고 아직 이용 가능한 다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로빈스는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너지를 반듯이 값비싼 전력으로만 공급한다는 것은 마치 “버터를 자르는데 기계 톱을 사용하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히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각종 전열기의 사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중동의 값비싼 석유를 사들여와 연소해서 얻은 고귀한 전기, 컴퓨터와 같은 고급기기를 작동시키는 데 이용되어야 할 전기가 고작 금불이나 연탄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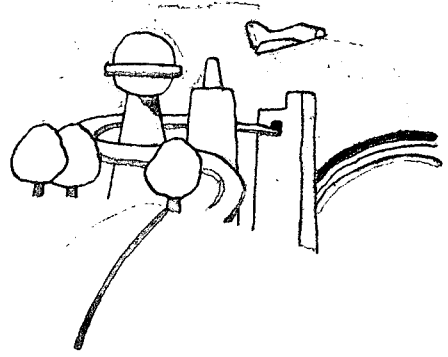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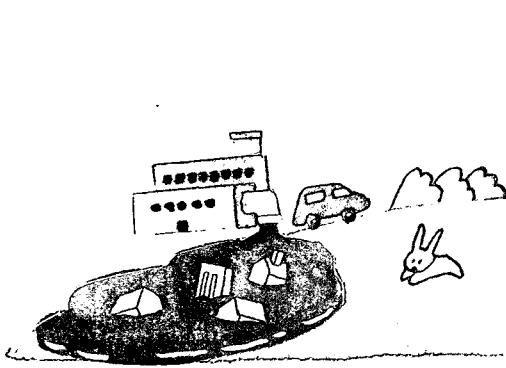
도 충분할 난방을 하는데 낭비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기 담요에서 전기 칫솔까지 모든 것을 전기로만 해결하려다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것잡을 수 없게 늘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까.

며칠전 경향신문에 게재된 원자력개발계획에 관한 좌담회 기사를 보면 선진국에선 전력소비가 연평균 2~3%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것은 10%에 이르고 있다고 상공자원부의 전력규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서독에서도 한 때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원자로 건설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이 일지 않았던 시절에는 전력소비가 해마다 7%씩 증가하리라는 것을 도그마처럼 믿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서독의 전력 소비는 10년만에 배증될 것이고 20년 뒤엔 4배로, 30년 뒤에는 8배로, 그리고 백년 뒤에는 1천24배로 증대하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때 가서도 감자를 재배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아마도 그는 발전소의 지붕위에 감자를 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핵론자인 서독의 전 경제협력성 장관 에플러 박사는 빈정대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래서 “슬기”입니다.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에너지 이용의 개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를 위해 덴마크의 옛가옥이나 옛가구들이 에너지의 이용율을 3배로 늘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례가 제시되곤 했습니다. 석유파동 이후 서독에서는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의 창을 2중창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하며 옛 주택의 창문 개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풍이 센 우리나라 시골 국민학교의 교실이나 전통적인 한옥의 주택구조를 그대로 두고 비싼 전력으로 난방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루에



물부는 낭비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서독 에센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는 행정조치와 기술적인 조치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소비절약을 하지않고 에너지 비용을 지금보다 20%내지는 25%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우리가 깊이 참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역시 “금욕”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공기와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고 지구의 생태학적 조화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환경문제는 겨우 세계의 극히 작은 일부 선진산업국가만이 누리고 있는 복지사회의 대가(代價)입니다. 그러나 장차 인구 12억의 중국, 8억의 인도 그리고 그밖에 다른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느날 경제개발에 성공해서 지금의 선진 복지사회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0여억의 중국인이 다 마이카를 몰고 8억의 인도인이 저마다 에어컨으로 냉방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아프리카인이 냉장고를 사용하고 모든 남미사람이 제

트기를 타고 신희여행으로, 바캉스로 외국에 드나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그럴 경우 이 지구의 환경이 그러한 낭비적인 인류의 복지를 감당해 낼 수가 있을런지요.

이른바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 이런 문제 제기의 언저리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냉장고의 무덤, 자동차의 무덤, 핵폐기물의 무덤으로 덮여버리지 않고 배추를 심으려해도 발전소의 지붕위나 심어야 되는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기에 선진 복지국가의 생활수준을 현재보다 떨어뜨리는 “금욕적인 세계문화”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핵에너지를 반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단념하겠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이츠 잭처럼 핵에너지의 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독재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인 “선택”에 의해서 과연 사람들의 삶의 질,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금욕의 문화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여섯째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삶의 모습(life style)을 바꾸는 일입니다. 금욕이 강요됨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일(放逸) 낭비가 아니라 근검·절약하는 삶의 모습을 좋다. 멋이 있다고 보는 관점, 그러한 가치관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비문화·대중문화가 보여주는 찰나주의, 몰량주의 타자지향성, 외래풍습상, 그리고 그건 것들이 실토하고 있는 내면적 허무주의는 어떤면에선 무엇이 참으로 값어치가 있고 무엇이 참으로 멋 있는 삶의 모습인가를 알지 못한데서 결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멋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마음의 허전한 공동을 매우기 위해서 허기진 낭비가 또다른 낭비를 촉발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멋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멋의 모범을 찾는 일입니다. 새로운 멋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한 멋을 체현(體現)한 두 사람의 보기를 여기에 소개함으로써 얘기를 마치려 합니다.

한분은 어느 은행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한동안 저와 같은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던 분입니다. 직장을 두군데나 나가고 있던 그의 수입은 물론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가용을 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번도 택시를 타는 것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버스로 퇴근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0여분 빨리 귀가해서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택시 불리용의 변

(辯)이었습니다. 그는 가을이 되면 쌀 열가마를 사들이고 김장을 넉넉히 담고 구공탄을 뿔뿔이 가득히 사서 쌓아두면 무슨 난리가 나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낙천주의자였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김치를 반찬 삼아 이 밥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자면 그만이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옷 사치도 물론 안했습니다. 다만 돈의 여유가 있으면 그는 도자기를 보러 다니고 난초를 기르고 음악회를 가는 것이 그의 사치자 취미였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그룹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룹의 회장으로 계실 때에도 손님이 찾아와 식사대접·술대접을 할때면 한 사람 앞에 만원 이상을 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젊은이들이 어울리는 무슨 무슨 호프에서 생맥주와 그에 따라 주문하는 안주가 그의 손님대접이었습니다. 헬스클럽 같은데도 물론 나가지 않고 몇십년을 하루같이 새벽이면 두시간 동안 남산을 산보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그분의 돈안들이는 투자입니다. 그러면서 노익장의 건강한 심신으로 젊은이보다 더 많은 독서를 하고 때로는 신문잡지에 글을 기고 하시기도 합니다. 참 멋있는 분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분은 만일 그가 교수였다면 우리나라 경제학이 달라졌을 것이란 평판을 받던, 애석하게도 한창 나이에 타계한 서울신탁은행의 고(故)이규동 상무요, 뒤에 말씀 드린 또 한분은 두산그룹의 회장이셨던,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하신 환경보전협회의 정수창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